

남원시, 춘향제 결과보고회 성료

전통문화예술분야 전국 최고 축제로서의 진면목 보여주었다는 평가
뮤지컬·사랑춤·마당극·창극 등 남원시민 열정과 자긍심 보여

남원시춘향제추진위원회는 김진석 부위원장 주 관으로 지난 20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재미와 감 동이 있는 공연예술축제를 주제로 펼쳐진 제88 회 춘향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축제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제88회 춘향제는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최고 의 행사로 평가 받는 등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예 술분야 전국 최고 축제로서의 진면목을 아낌없 이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88회 춘향제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공연 예술제로서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시민 참여율을 높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여 준 길놀이, 다채로운 업그레이드 된 재미와 감 동을 느낄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개막공연, 전통소리경, 명인명창국악대향 연 및 남원국악고 학생들이 연출한 창극 춘향실 록 등은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제로서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이관사관총판에는 전국의 춤꾼들이 모여 다양 한 장르의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시민플래 시몹으로 선보인 '사랑춤'은 시민과 관객이 하나되는 감동을 연출했다.

또한 춘향시대속오에서는 포토존과 한복대 여를 통해 춘향의 시대로 들어가는 체험과 문

화카페, 지붕없는 미술관 등 다양한 행사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요천둔치를 수놓은 화려한 꽃밭과 문화카페의 즐거움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뮤지컬, 사랑춤, 마당극 등 춘향제를 통해 남원시민의 열정과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88회 춘향제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공연예술제로서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시민 참여율을 높였다.

한편 이완주 남원시장은 행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안숙선 춘향제추진위원장과 김진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제진위원 및 행사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제88회 춘향제의 잘된 점은 더욱 발굴하고 잘못된 점은 분석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결과보고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내년도 제89회 춘향제를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그룹 '빅뱅' 웹툰으로 만나요, 한·미·일 동시연재

그룹 '빅뱅' 다섯 멤버들을 본 때 만든 캐릭터인 '고블링즈(GO BLINGS)'를 소재로 한 웹툰이 나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KT가 공동 제작한 '고블링즈'가 지난 20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웹툰에는 고블링즈와 멤버들의 도깨비로 설정된 '블링즈'가 함께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블링즈와 신비한 반짝이의 행방을 알고 있는 빅뱅 멤버들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다.

빅뱅 팬인 웹툰작가 키린이 멤버들의 특징

을 담았다. 멤버 지드래곤의 블링즈인 '슈'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신발 수집이 취미인 지드래곤의 특징을 반영한 '고양이 신발 도깨비'로 그려지는 식이다.

한국에서는 KT 웹툰 사이트인 케이툰, 미국과 일본은 '타파스'와 '픽코마'에서 볼 수 있다. 총 12화로 구성된 이번 웹툰은 매주 금요일 1편씩 연재된다.

YG는 "고블링즈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공백기에도 빅뱅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빅뱅



다섯 멤버 중 막내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 멤버는 근복무 중이다. /뉴시스

방심위, 출연자 연령에 맞지 않은 게임 장면 방송한 tvN 예능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이 방송에서 본인 연령에 맞지 않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예능프로그램을 행정지도 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동지탈출 3'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어린 출연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장면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권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게임 영상을 방송할 경우 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tvN '동지탈출 3'은 5월8일 오후 8시10분 방송한 제4회에서 '14세, 중학교 1학년'으로 소개된 출연자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해당 PC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15세이용가' 등급 등 2가지 버전으로 유통됐다. 해당 방송시간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다.

6월14일 방송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도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진행자가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참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이라고 언급한 TV조선의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도 '권고'가 결정됐다.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이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2018달리는 국악무대 '한여름 밤 국악무대' 공연을 펼쳤다.

국립민속국악원, 한여름 밤 국악무대 공연

사물놀이·남도민요·기악합주·판소리·민속무용 등 다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2018달리는 국악무대 '한여름 밤 국악무대' 공연을 펼쳐, 가족들과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도란도란 음식도 즐기며 밤에는 별을 지붕삼아 전통공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여름 밤 국악무대는 국립민속국악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무대차량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된 지역에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공연에서는 사물놀이, 남도민요, 판과 소고춤, 기악합주, 판소리, 민속무용 등 매일 매일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27일(금)~29일(일)은 지리산 달궁 자동차 야영장에서, 8월 3일(금)~4일(토) 덕유산 덕유대 야영장 무대에서 오후 8시에 열린다.

또한 모든 관람객들에게는 부채를 제공하고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on.gugak.go.kr>) 또는 전화(063-620-2324~5)로 확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TV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뮤지컬로 나온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1991~1992)가 방송 27년 만에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공연제작사 수기컴퍼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내년 2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작가 김성종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원조로 통한다.

방송 당시 58.4%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쳐 6·25동란에 이르는 역사를 세밀하게 담아낸 시대극이다. 최재성, 채시라, 박상원, 고현정 등이 나왔다.

변수희 프로듀서는 "1년5개월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친다"면서 "30년 전쟁을 겪어낸 세 남자의 지난한 삶을 통해 한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와 대사를 무대 위에서 재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우성 연출을 비롯해 뮤지컬 '웃는 남자', '마타하리'의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연극 '리차드 3세'의 조수현 영상디자이너,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원미술 음악감독 등이 뭉친다.

출연 배우들은 8월13일부터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개오디션을 통해 뽑는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역량 있는 남녀다. 8월 5일까지 소설 미디어 등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뉴시스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